

# 살고 싶은 2020 함께 만드는 2030

2020년,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완전한 해결, 든든한 시정  
굳건한 연결, 튼튼한 기본  
희망찬 숨결, 탄탄한 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굿모닝인천

JANUARY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3

# 01

COVER STORY  
메이커스, 인천 대한제분 김수철 공장  
표지 사진 류창현



임  
순  
례



여덟 살 무렵의 임순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영화는,  
어린 시절 서민들의 동네에서 살던  
삶이 기반이 됐다.

남루하고 찬란한,  
시간의 도시

인천 변두리의 변두리, 논밭이 지천이던 부평구 구산동. 왜소했던 소녀 임순례에게 머리 위까지 자라난 벼와 보리의 노랑고 푸른 물결은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웠다. 돌아 보면 어린 시절의 삶도 그랬다. 사는 게 팍팍해 때로 매정했던 이웃에게도, 없어서 못 배운 울분을 술로 달래고 가족에게 풀던 아버지에게도, 결코 마음의 등을 돌리지 않던 소녀의 시간은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다. 누추한 삶도 온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임순례의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와 그의 영화가 남루하고도 찬란한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자세한 이야기는 임순례 감독 인터뷰 2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JANUARY 2020  
Vol. 313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신봉훈(소통협력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 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 웹진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04	인천 미소 인천의 맛과 멋으로 팍 찬 매거진 外
06	신년 인사 시장 메시지 / 의장 메시지
08	새해 소망 인천시 홍보대사 메시지
12	메이커스, 인천 대한제분
16	인천의 맛 분식
20	2020년 시정 키워드
24	인천, 사람 임순례 영화감독·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28	‘인천 홍보대사’ 가이드 파라다이스시티 ‘아트 스페이스’
32	굿모닝인천 인식 조사 시민의 목소리
36	내가 사랑하는 인천 환경운동가 박병상
38	시민 시장 인천 유일 여형사 조설
40	문화 캘린더 정글 헌터 어드벤처 ‘백설공주 편’ 外
42	문화 포커스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
44	이미지 뉴스 안심in
46	시정 뉴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캠프마켓’ 外
50	의정 뉴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外
52	드로잉 인천 배다리
54	인포 박스 폭력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外
58	인천의 아침 굿모닝, 캠프마켓
59	인천사진관 박남주 독자님 가족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맛과 멋으로 꽉 찬 인천

인천이 가진 다채로운 도시의 색을 가치 있게 담아내고, 지난 시절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는 <굿모닝인천>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지난 김장철 소개된 강화도 순무밭 풍경은 잃었던 입맛까지 되살아나게 할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김장 땀 순무김치를 담가볼 생각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맛과 멋으로 꽉 채워질 다음호가 벌써 기대됩니다.

이지영 미추홀구 수봉로

든든한 의료 서비스, 살기 좋은 인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닥터카 관련 기사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 중증외상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 접점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인천시의 노력도 느껴져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해중 중구 인종로

시민을 위한 자산, 시민이 지켜요

인천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이곳저곳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민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재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박종술 서구 봉오재2로

‘정보’에 ‘배려’가 더해진 생활의 플러스

<굿모닝인천>의 다른 이름을 ‘배려’라 부르고 싶습니다. 인천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녹여내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 뉴스 플러스’를 통해 어르신을 생각하는 진심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속 다양한 소식을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굿모닝인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최상근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 리 동 네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한 책 마을 ‘효성동’

글 이희영(계양구)

새벽 효(曉)에 별 성(星), 마을 리(里). 효성동(曉星洞)의 옛 이름은 ‘새벼리’다. 효성동은 마을 사람들의 톡톡 튀는 발상과 자발적인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2번 종점’으로 더 잘 알려진 버스 종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안경점, 빵집, 약국, 카페, 꽃집 등의 출입문에 달린 공통된 표식을 발견하게 된다. ‘책 읽는 가게’라 쓰인 네모진 마크다. ‘책 마을 사업’은 동네 곳곳 거점형 작은 도서관을 탄생시켰다. 뜻을 같이하는 가게에 책꽂이와 15권의 도서를 제공하고, 매달 한 권씩 돌려가는 방식이다. 책 읽는 가게는 매달 1만원씩 기금을 내고, ‘책마을만들기운동본부’는 우수 도서를 선별해 한 권씩 가게에 제공한다. 가게를 방문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지역 학생들은 책 읽는 가게를 방문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책 읽는 동네 효성동의 시작은 2014년이다. 효성동 내 초중고 10곳의 독서어머니회가 중고 책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2015년 책으로 만드는 마을 공동체를 목표로 책마을만들기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4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 효성어린이공원에서 중고 책 장터가 열렸다.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중고 책 장터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효성1동과 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샛별 장터’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효성동 책마을만들기운동본부는 2017년 4월 마을 신문 ‘샛별’을 창간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소소한 일상과 다양한 소식을 담았다. 현재 효성1·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자 8명과 주민 기자 12명이 활발히 활동하며 효성동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소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행복한 마을 효성동,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민이다.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한층 변화하고 준비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  
돌은 해소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주춧돌을 다졌으며, 세계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  
한 디딤돌을 놓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도 인천시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시정 모티브를 바탕으  
로, 시민의 숙원 과제들을 완료하고 시민 공동체와 도시 기본망은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  
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해결, 든든한 시정’에 힘쓰겠습니다.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  
한 관건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안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건립  
과 청라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사업도 잘 매듭짓겠습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마무리하  
고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공공 갈등 현안은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소해 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굳건한 연결, 튼튼한 기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철도 신설과 연결 사  
업, 내부 순환교통망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항 재생과 해양친수공간 연결 등 바닷  
길 연결과 역사문화길 연결 사업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고 시민의 마음  
을 잇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등의 관망·연결도로망·숲길과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늘려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도  
서관 등을 대폭 확충해, 삶이 행복한 문화 이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희망찬 숨결, 탄탄한 미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스마트산단·공항경제권·  
관광산업활성화·부품소재산업과 뿌리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협업체계를 잘 닦아가  
겠습니다. 자원 재생 시스템 대전환과 맑은 물·공기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선진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자아를 완성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인천시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속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켜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시장

민심을 반영하는  
소통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로 인천 시민 모두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만들어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롯이 시  
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민심이 제  
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  
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동안 의원 발의 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의원들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출석률도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열망을 담은 목소  
리도 크게 내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규탄, 경인  
아라뱃길 사설 예방 대책 마련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등 42건의 결의문을 중앙  
부처 등에 전달했습니다.

2020년도 인천시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 증진과 도시 간의 불균형,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복지 예산  
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살피고, ‘인천형 자치 복지선’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  
째,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제·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회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인천 현안에 대한 대책과 인천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형 자치 분권 실현 방안’  
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지방은 주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목  
표를 향해 마음을 합친다는 ‘구동합심(求同合心)’으로 주민, 지자체, 국가가 서로 조화를 이  
루며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인천이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희망찬 새해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쥐띠 해를 맞아 인천시 홍보대사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을 들어봤다. 홍보대사들의 새해 소망으로 인천의 내일 지도를 그려보자.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류은진(41) 연수구, 교사



가족 모두의 건강, 그게 가장 큰 소원이죠. 직장 다니는 저를 대신해 아이 둘을 돌봐 주시는 부모님의 건강이 더욱 신경 쓰이네요. 2020년에는 주변의 이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힘들지 않고,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좀 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말에 종종 아이들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도서관에는 식당이 없어요. 도서관 매점 등에서 간단한 음식을 판매한다면 아이들과 편리하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천e음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인천시 전역에서 인천e음카드가 더 활발하게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인천e음카드 메인 홍보 영상 시민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시 정책 홍보에 적극 참여

장용(56) 계양구, 개그맨



‘人天地海’ 인천은 바다와 하늘로 뻗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진 사람들이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올해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을 소망해 봅니다. 역사성과 다양성을 품고 있는 인천이 인천만의 콘텐츠 개발에 좀 더 집중해 수도권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인천을 홍보해 왔는데, 올해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천 홍보대사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해 좀 더 유기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길 기대합니다.

경인방송에서 시사토크를 진행 중인 개그맨, 2018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특별상 수상

이미진(29) 부평구, 자영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착되어 매출이 10배가 넘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력 표준치를 달성해 보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마라톤 10km 1시간 이내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과 국내 5곳 이상의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쥐띠 해를 맞아 쥐처럼 부지런히 움직여 사업도, 개인적인 목표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행사 등이 활성화되어 인천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인천을 알리는 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복 모델 인천 본선 진출, 광고 분야 스타트업 CEO

이건호(31) 서구, 청년 사업가



올해부터 그동안 준비해 오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표하는 성과를 얻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가족과 지인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되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인천시에서 최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시정 활동에 시민 참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동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이 인천시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에서 뉴욕까지 73일간 자전거로 횡단하면서 인천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가



올해 저의 소망은 자기 개발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는 한 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 중인데, 열정이 노력을 만들고 그 노력이 성공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 도전하고 열심히 참여한다면 분명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인천 홍보대사인 만큼 인천의 캐릭터 친구들 버미, 에이니, 꼬미, 등대리와 함께 인천을 더욱 밝고 힘차게 빛내고 싶습니다. 참!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 자주 다녔는데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 버스를 한번 놓치면 30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서울을 오는 교통편이 조금 더 편리해지면 좋겠습니다.

2013~2016년 에어로빅 체조 인천 대표 선수, 전국 체전 3위 외 전국 대회 다수 수상

신슬기(21) 계양구, 대학생



그동안 한국의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수식어처럼 소프라니스트이자 카운터테너로서 많은 공연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연기획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공연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문화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계획도 있는데, 저의 역량과 역할을 넓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극복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음악과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팝페라 가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연 기획사 대표

문지훈(30) 미추홀구, 가수



정유천(62) 부평구, 음악인

인천시가 한류의 주역인 K-Pop의 원류 도시인 만큼 음악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홍보해 문화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라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고 잘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문화 공간, 공방, 소극장, 갤러리, 라이브 클럽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들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인천을 문화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 중인 인천 출신 음악인, 인천밴드연합회장



문유진(11) 남동구, 배우



새해 소망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어 제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인천시 홍보대사로서 제가 사랑하는 인천이 더 나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미래를 위해 환경을 가꾸는 데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저의 소망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연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아스달 연대기’, ‘배가본드’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촉망받는 아역 배우

지난해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였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고민도 많고 방향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방송에 출연하고 기사에도 실리며 과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로 인천시 홍보대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몸과 마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서 홍보대사가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홍보대사가 된 만큼 인천시와 의료인의 활동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교통사고 환자를 현장에서 능숙하게 응급 구조하는 선행으로 언론에 소개

이애주(26) 부평구, 간호사



오유민(14) 중구, 중학생



바쁜 학교생활로 운동을 게을리 해서 체력이 떨어져 걱정입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인천의 멋진 십대로서 새해에는 공부와 좋아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기운차게 해나갈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싶어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영어 팝, 케이 팝 장르를 불문하고 좋은 노래를 커버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의 옛 이름이기도 한 ‘미추홀’, 그리고 영어로 ‘Meet you all’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인천시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또래 친구들과 ‘Meet you all’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자 각오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홍보 모델, 통일부 어린이 기자 및 어린이 합창단 활동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유상철 감독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유상철 감독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인천시를 응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면을 빌려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빕니다.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인천의 대표 시민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FC 감독

유상철(49) 서구, 축구감독





빈곤의 삶  
소복이 덮던,  
하얀 밀가루



오늘도 당연하게 쓰이는, 무심코 손에 닿는 물건들. 그 누군가가 일터에 틀어박혀 인생을 내어주고 만들어낸 것들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메이커스’를 만난다. 그 첫 번째로 배고픈 시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오늘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대한제분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밀가루와 그 재료가 되는 원맥. 대한제분 인천 공장에서. 스타일링 진희원

1



1. 1960년대 대한제분 밀가루. 곰표에 고래표, 암소표까지…. 그래서 공장 사람들은 대한제분을 ‘동물농장’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2. 1960년대 제분 공장 인부들이 양곡을 하역하는 모습.

살기 위해, 노동자의 삶 속으로

1960년대 인천항 부두 하역장, 너저분한 바닥에 원맥이 버려져 널려 있다. 제분 공장 인부들이 그 알알을 움켜쥐고 주머니며 장화 속에 숨겨 넣느라 여념이 없다. 가족의 주린 배를 채우고 내다 팔아 굶핍한 살림에 보탬 수도 있으리라. 그 간절한 마음들이 부둣가 창고의 곡물 언덕처럼 쌓이고 쌓여 산더미가 되어갔다.



1920년대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섰다.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터를 잡았다. 6·25 전쟁을 피해 북에서 온 사람들, 인생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이 만석동 ‘똥마당’으로 떠밀려왔다.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공장지대의 불빛은 고단한 삶을 지탱하게 하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공장 노동자의 삶 속으로 주저 없이 걸어 들어갔다.

1921년 일본제분은 만석동 매립지에 근대식 제분 공장을 설립했다. 그 후 광복을 맞고 6·25 전쟁을 지나, 1952년 창립자 이한원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공장을 나라로부터 사들여 ‘대한제분’으로 다시 세웠다. 그해 밀가루 연간 생산량은 22kg 한 포 기준으로 100만 포대에 이르렀다. 어려운 시절, 시커먼 공장에서 쏟아내는 하얀 밀가루는 빈곤한 삶을 위로하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었다. 1957년에는 제분 공장 신관을 새로 지었다. 제분업계 단일 규모로는 동양 최대 시설이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1, 2. 대한제분 인천 공장 내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모든 공정 끝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

3. 원맥 선박이 닻을 내리는 인천 내항.  
오른쪽으로 저장탑과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가,  
왼쪽으로는 월미바다열차의 레일이 이어져 있다.

기계는 대신할 수 없는 것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급하던 시절이었다. 공장에서 매달 직원들  
에게 22kg 밀가루 한 포식을 안겨주면 마음까지 두둑이 차올랐  
다. 대한제분은 창립기념일인 크리스마스와 명절 때도 밀가루로  
선심을 썼다. 직원들은 밀가루를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져가  
기도, 술과 밥으로 바꿔 먹기도, 전표를 사는 사람에게 팔기도 하  
며 유용하게 썼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니 몸 쓰는 만큼 급여도  
받고, 가뭇돈까지 챙길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있으랴. 아버지는 노  
동으로 육체가 지쳐가는지도, 늙고 쇠해가는지도 모르고 일했다.  
설립 초기 대한제분 인천 공장의 직원 수는 무려 1,000여 명에 달  
했다. 현재는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 옛날 한겨울에도 땀 흘  
리며 원맥 가마니를 나르던 하역 노동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오늘,  
멀리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온 2만~3만 급 선박이 원맥을 쏘  
아내면, 그 원맥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거대한 저장탑 ‘대한 싸  
이로’로 일사불란하게 집산된다. 제분 공정 대부분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건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기계는 결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땀 흘리는 만큼, 아름다운 삶

김수철(49) 기장은 1995년 대한제분에 다니던 외삼촌의  
소개로 이 공장으로 왔다. 그때만 해도 공정마다 온기 어  
린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사람이 일일이 밀가루  
를 포대에 담아 재봉까지 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무슨 공사를 하고 또 무슨 공사하더니 자동 설비와  
로봇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현재 대한제분 노동자의 평  
균 연령대는 40, 50대로 가장 젊은 사람이 30대 후반이  
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요즘은 60도 젊은 나이인데 떠나는 선배들을 보면 안타  
까워요. 모두 인재인데... 사수들 중엔 일용직으로 아직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청소부터 시작해 모진 말  
들으며 힘들게 일을 배웠지만, 때론 사람들에 부대끼던  
그 시절이 그립다.

가난한 시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대한제분은, 오늘  
여전히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한다. “와, 아빠 ‘회사’다.”  
장성한 김 기장의 두 딸은 어린 시절 ‘곰표’가 그려진 밀  
가루만 보면 이렇게 외치곤 했다. “우리나라에 어디 ‘대  
한제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의 말에서 자식들 잘  
키우고 평생 먹고살게 한 직장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  
심이 묻어난다. 곰표 하면 밀가루, 밀가루 하면 대한제  
분, 그리고 인천... 북성포구 가는 길, 곰표가 새겨진 거  
대한 공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의 고리가 이어지곤  
했다. 70년 가까이 한길을 걸어온 대한제분은 부산 공  
장과 대한싸이로, 대한사료, DH 바이탈피드 등의 자회  
사를 거느린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중장  
년층에게 친숙한 ‘곰표’가 뉴트로(New-tro) 열풍 속에  
젊은이들 사이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대가  
변해도 긴 시간 묵묵히 흘려온 땀의 생명력은 길다.

일하는 게 전부인 삶,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인천항 거친 바닷가 밀가루 공장  
사람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허기진 가슴을 채우며, 땀  
흘려 움직이는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

‘맛있는 곰표’를 넘어 ‘즐거운 곰표’로.  
뉴트로 열풍을 타고 곰표가 젊은층에게  
핫한 브랜드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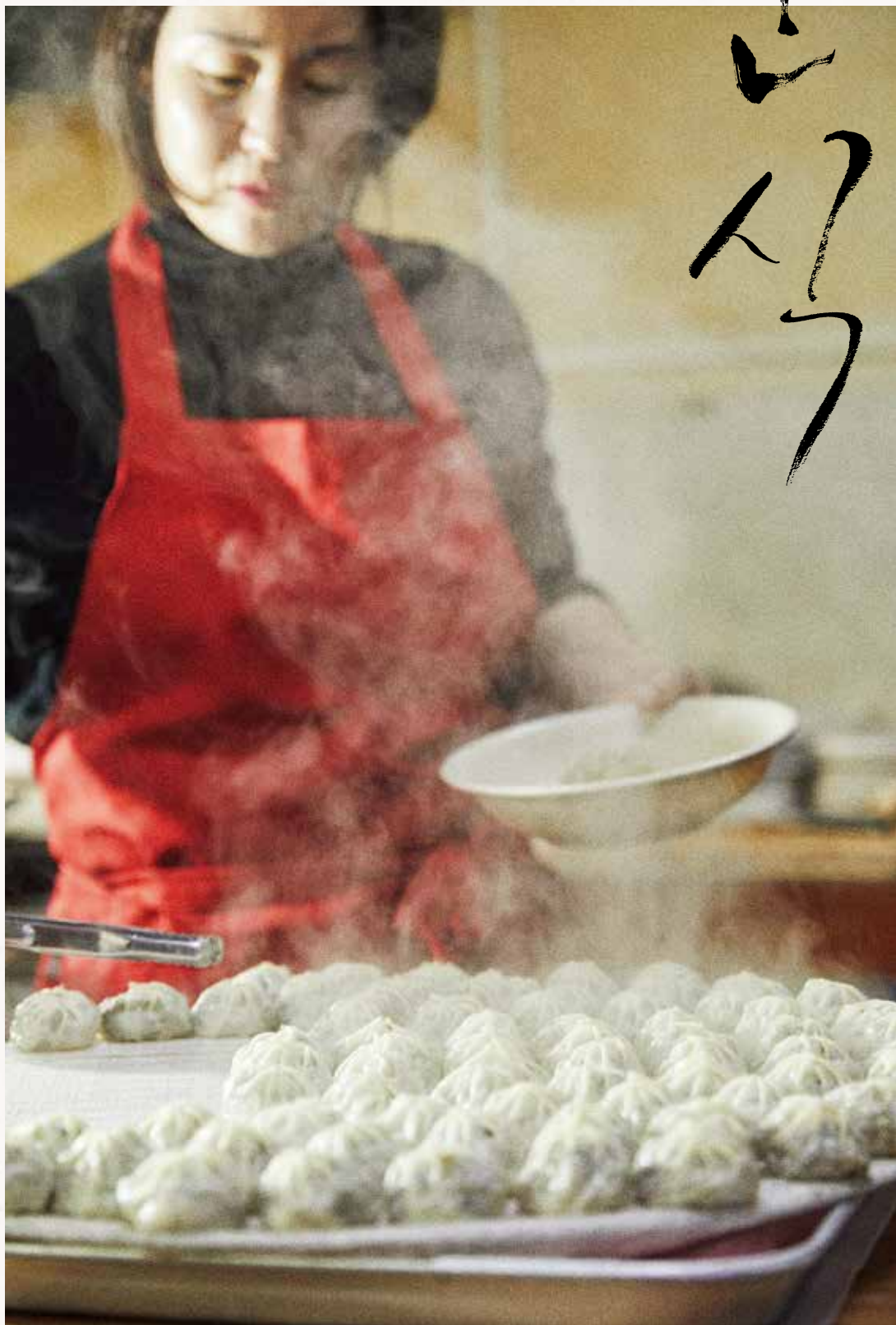




# 분식

粉食

평범해서 소중한 한 끼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똑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다섯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한 끼, 분식(粉食)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맛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분량만큼 삶을 채운다는 의미. 그저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쌓고 생명력을 더하는 일이다. 주린 배와 구멍 난 마음을 한꺼번에 채우는 따뜻한 한 그릇이 여기 있다. 어려운 시절 귀한 쌀 대신 먹어야 했고, 지금은 웰빙 푸드 사이 천덕꾸러기가 됐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 분식이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국수를 뽑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한민족의 역사와 마주한다. 그 안에 인천이 있다. 인천은 1883년 개항으로 중국 조계지가 자리 잡고, 1921년 우리나라 최초의 밀가루 공장이 들어서면서 고유한 면 요리가 발달했다. 그렇게 짜장면이 태어나고 쫄면이 처음 만들어지고 칼국수, 냉면 거리가 생겨났다. ‘아차, 잘못 뽑았다.’ 1970년대 초 경동에 있는 국수 공장 ‘광신제면’에서는 주문이 밀려 바쁜 나머지 그만 사출기의 체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 그렇게 굵게 뽑힌 냉면 면발은 ‘국민 분식’ 쫄면이 됐다. 광신제면은 ‘쫄면을 최초로 만든 곳’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금도 밀가루를 만지고 있다. 창업주인 장보성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하경우(63), 이영조(59) 부부가 16년째 공장을 꾸려가고 있다. “할머니께서 ‘돈 벌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덕을 많이 봤지요.” 말은 그리해도 부부는 면을 뽑는 것만 으론 돈벌이가 어려워, 택배 일을 하고 부평공단 사람들의 작업복도 빨며 버티고 버티어 여기까지 왔다.

안타깝게도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광신제면 건물은 머지않아 헐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굴곡 있는 삶을 겪어온 부부는 담담하다. “새 건물로 가면 돼요. 광신제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광신제면’이라는 이름의 역사가 쫄면 면발처럼 질기게 이어지길 바란다.



광신제면의 하경우 대표(위)  
광신제면표 원조 쫄면. 그리고  
1970년대 쓰던 기계와 사출기(아래)





‘국민 학생’들의 ‘참새 방앗간’

쫄면 하면 짹짹 찢어지는 만두, 떡볶이, 순대…. 어린 시절부터 곁에 두고 먹던 음식이라 어른이 되어서도, 형편이 좋아져 먹거리가 넘치는데도 자꾸만 생각한다. “지인이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음식 맛이 좋으면서도 왠지 낮익더라고요.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 자주 들르던 분식집이었어요.” 자리가 바뀌고 주인장은 달라졌지만 입이 기억하는 추억은 질긴 법이다.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얼레골레만두’는 1982년 학익시장 안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시장통에는 이름도 간판도 없는 분식집 10여 곳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가게가 시장 밖 골목으로 나온 건 15년 전으로, 원조 김정숙 할머니로부터 유재익(44), 장수연(43) 부부가 이어받아 3년째 꾸려가고 있다. 처음엔 ‘사람이 바뀌니 맛도 변했네 예전만 못하네.’ 말도 참 많았다. 그래도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손맛 그대로 알려주신 재료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니 손님들도 결국 알아주었다. 메뉴는 만두, 떡볶이, 순대, 라면으로 단출하다.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는 ‘떡만이’. 어린 시절 ‘국민학교’ 앞에서 먹던 밀떡볶이에 정성껏 빚은 만두를 풍당 빠뜨렸다. 최근에는 SNS상에 ‘인천의 3대 떡볶이’로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맛 좀 보겠다며 손님이 모여들고 있다. 추억을 부르는 음식 냄새를 따라 후미진 골목에 모처럼 활기가 인다.

- 쫄면
- 만두
- 떡볶이
- 칼국수



손으로 정성껏 빚는 ‘얼레골레’ 만두



알근달근 떡볶이, 추억이 보글보글



튀김가루를 잔뜩 얹은 ‘칼레스토랑’표 칼국수

뜨끈한 한 그릇에, 추억을 음미하다

신포동 골목에서도 1,000원짜리 몇 장이면 그리운 추억을 배불리 맛볼 수 있다. 1980년대 아이들에게 신포시장 뒤편은 ‘칼집’ 또는 ‘칼레스토랑’ 골목으로 통했다. 주머니 가볍던 학생들은 이 골목에서 200원, 300원 하는 칼국수로 마음까지 든든히 채웠다. 당시 유행하던 홍콩 누아르 영화를 틀어주기도 했는데, 영화 한 편을 온전히 보겠다고 친구들과 동전을 모아 국수 한 그릇 더 시켜 먹기도 했다.

‘골목집칼국수’는 40여 년 전 신포동 칼국수 골목에 가장 먼저 터를 잡았다. 장기선(73) 할머니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평범한 뒷골목이었는데, 할머니 칼국수가 대박 나자 10여 가게가 모여들었다. 여기서 국숫집을 하면 3년 안에 집 한 채 산다고도 했다. 지금은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두어 집만 남았다. “까만 교복 입은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주말이면 100그릇 넘게 팔았으니까. 2층짜리 가게가 아이들로 꽉 찼는데, 애들이 벗어놓았다 잃어버린 ‘나이키’, ‘프로스펙스’ 신발을 물어주느라 아주 혼이 났었지.” 300원짜리 칼국수를 팔고 몇 십 배는 더 비싼 신발을 물어줘야 했으니 손해 보는 장사. 그래도 할머니는 그때 그 시절이, 그 까까머리 아이들이 그립다.

“아직 그대로네. 여기가 예전에는 말이야…” 지금은 추억을 찾아오는 아저씨 아줌마들,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이 이 집 단골이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누추한 골목 오래된 집을 찾는 건, 행복했던 그렇지 않았든 살아온 지난 시간이 언젠간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 광신제면  
중구 참외전로158번길 5  
☎ 032-773-2212
- 얼레골레만두  
미추홀구 한나루로412번길 3  
☎ 032-864-3330
- 골목집칼국수  
중구 신포로 32-22  
☎ 032-765-3149



# 2020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우리 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 3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9월부터 노선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하는 등 시민 위주의 정책을 만들어 시민과 호흡하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2020년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교육·문화·관광·체육



###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지난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부터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체 학년에 무상 교육을 확대한다.

문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62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업무 시행

인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업무를 시행한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를 지급한다

문의 시 문화재과 032-400-4032

## 여성·보육·가족

### 성폭력 피해자 자립 공동생활가정 운영

성폭력 피해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립·재활 교육·취업·진학 등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적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문의 시 여성정책과 032-440-2759

###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공공 산후조리원이 갖춰진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혁신육아복합센터는 출산동과 영유아동 등 2개 동으로 건립되며, 2022년 말 개소를 목표로 부평구 부평동 옛 경찰학교 부지 1만5,000㎡에 들어선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032-440-2839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7~2018년 국·시비 지원 공기청정기를 보유한 모든 어린이집이며 대당 연간 최대 8만원을 지급한다.

문의 시 보육정책과 032-400-2898

### 아이사랑컴터 설치 및 운영

공동 육아 공간인 ‘아이사랑컴터’를 2023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아이사랑컴터’는 이웃들이 함께 아파트 단지 등 집 가까운 곳에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이다.

문의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32-431-4606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3월부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 난임 진단서, 난임 관련 검사 결과서 등을 지참해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육아지원과 032-440-3222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무상 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9~24세 청소년이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54

### 인천형 작은 결혼식, 커플당 100만원

허례허식 없는 합리적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20쌍을 대상으로 한 커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시 가족다문화과 032-440-2873



## 사회 복지·노인·보건·의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기존 노인 돌봄 6개 사업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노인들의 필요에 따라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032-440-2823

### 효(孝)드림복지카드 지급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 계층 어르신 개개인이 원하는 복지 혜택을 골라서 누릴 수 있는 ‘효드림복지카드’를 도입한다. 바우처 형식의 효드림복지카드는 연간 1인당 8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3

### 청년저축계좌 신설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가구 청년(만 19~39세)이다.

문의 시 자활증진과 032-440-1543

###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

약물 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환자 불편 해소 및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해 6월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를 실시한다.

문의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13

###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및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 손잡이, 통로 장애물 제거, 문턱 단차 제거, 개방형 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한다.

문의 각 군·구 건축과 또는 복지 부서

일자리·경제·산업

기업연계형 청년 일·경험 지원 추진

인천 소재 직업계고교 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현장에 기반한 기업 탐방 프로그램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연계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44

스마트 전통시장 감성 지도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개별 점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전통시장 감성 지도를 운영한다.  
문의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4

청년을 위한 월세 비용 지원

취·창업 재직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 거주 만 19~39세, 1인 가구,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7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문의 시 청년정책과 032-440-4163

중소기업 협약 보증 최대 5억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때 인천시 협약 보증을 요청하면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보증 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032-440-4253

중소기업 저작물 법률 상담

인천시 소재 중소·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의 저작물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032-440-4262



생활·환경·안전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민간 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해 인천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시민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조사 사건에 대해 권고·기각·각하를 의결해 결정문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신청인·피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문의 시 노동인권과 032-440-4412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 교정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전문가가 방문해 반려견 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 중 하나로 연수구, 부평구에서만 실시된다.  
문의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9

수질 정보 스마트폰 실시간 공개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문의 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173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실시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환경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매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10%를 감축하는 반입 총량제를 실시한다. 반입총량 초과 시에는 해당 군·구 생활폐기물 반입정지 5일, 반입수수료 100%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시 자원순환과 440-3563

농업기술센터 청사 계양구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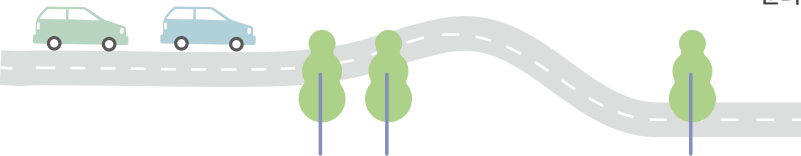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계양구 봉오대로 855로 이전했다. 농식품체험교육관, 친환경농업관리관, 스마트농업지원관, 원예치유정원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센터로 운영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032-440-6904



도시 계획·도시 개발

부평동~장고개 간 연결 도로 개통

1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가 개통된다.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간선 도로의 정주 기능을 강화했다.  
문의 시 종합건설본부 032-440-5214



교통·항만·수산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도서민에 한해 신분증 없이 인증 시스템 전자 사진만으로도 선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민 승선 절차를 간소화한다.  
문의 시 도서지원과 032-440-4982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170대에서 300대로 늘린다. 교통이동센터에 장애인 증명서를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1577-0320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 운영

9월부터 노선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노선마다 연속으로 운행하는 버스 3대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2차레 이상 촬영된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한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시 교통관리과 032-440-3901

전동차 공기질 개선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 전동차 객실내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객실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인천교통공사 1899-4446



고단하고  
힘들어도,  
  
꽤  
괜찮은 삶

임  
순  
례



추억 속 삶에도 희로애락은 있다. 그때도 가난한 생활은 고단했고, 모진 세상살이는 힘겨웠으며, 반복되는 일상은 무미건조하게 흘러갔다. 그렇더라도 지난 기억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삶이나,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처럼 소중한 추억은 있다. 영화감독이자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인 임순례에게는 인천 변두리의 변두리, 논밭이 지천이던 부평구 구산동에서의 기억이 그렇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몇 번을 다시 봐도 새로운 영화가 있다. 지루하고 유독 길게 느껴지는 날이면 꺼내어 볼 인생 영화 한 편쯤 없는 삶은 얼마나 무료한가. 인생 영화는 없어도, 떠올릴 때마다 그리운 추억이 있다면 꽤 괜찮은 삶이라 말할 수 있으리라.

많은 이의 가슴에 길이 남을 작품을 안긴 임순례 감독은 남부럽지 않은 추억 부자다. 추억의 무대 대부분은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부평구 구산동. 30~40분씩 걸리는 학교 가는 길은 걸핏하면 넘어지는 소녀에게 참으로 험난했다.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논길은 왜 그리 미끄럽고, 물길은 어찌 그리 자꾸 나타나는지. 개울에 빠져 떠내려가는 신발이며 가방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아득함, 학교를 코앞에 두고 눈에 빠져 진흙 범벅인 채 집으로 돌아가던 허탈함이 일상처럼 반복됐다. 한겨울 추위보다 더 매서웠던 2월 꽃샘추위 속에서는, 길가에 나와 있던 연탄불에 데워진 돌의 온기로 견디며 걷고 또 걸어야 했다.

분명 고생스러운 기억인데,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도 미련도 없다. 그래서일까.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 ‘오픈’ 장면들이 아름답고 아련한 한 편의 영화처럼, 동화처럼 그려진다.

감독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부평구 구산동의 기억이 궁금합니다. 인천이 원래 토박이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1948년에 오셨어요. 어릴 때 구산동은 충청도, 전라도 시골에서 일을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인,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 다. 아버지는 근처 백마장에 있던 미군 기지에서 일하 셧지요. 아마 허드렛일이었을 텐데, 그래도 낄품 파는 노동자들보다는 대우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고지식 한 분이라 남들처럼 미군 물건 빼내 가뒀돈 만드는 요령은 없었어도, 학용품은 가져다주시곤 하셨지요.

친구들이 부러워했겠네요.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술 을 너무 좋아하셔서 마냥 고마워만 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학이셨거든요. 그러니 몸 쓰는 일밖에 할 수 없고, 영어를 배우지 못했으니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것들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분이라 더 박탈감을 느끼셨겠지요. 그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래셨던 가 봐요. 그래도 아버지는 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 7년 정도 금주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는 제가 예쁨을 많이 받는 막내딸이었지요.

그 동네에서는 언제까지 사셨나요? 대학교와 대학원 은 서울로 갔는데, 집에서 계속 다녔어요. 20대 후반 에 프랑스로 유학 가면서 인천을 떠났지요. 어머니랑 큰오빠 가족은 지금도 구산동에 사시고요.

한창 감수성 예민한 시기를 인천에서 보내신 거네요. 그 시간이 감독님 영화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딱 집 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겠지요. 제 영화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 로 바라본다’고 평가들 해 주시는데, 모두 배고픈 시절 유난히 어려운 동네에서 살았던 경험 덕이 아닐까 싶 습니다. 인천에서도 시골 동네에서 자라 자연이 친숙

해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도 찍을 수 있었고요. 사 실 제작자들은 내켜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계절을 꼭 담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평범해서 더 아름답고 소 중한, 그런데 자꾸 잊혀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계절 별로 담아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때론 영상이 스토리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위 원장을 맡고 계신 인천영상위원회의 역할도 그런 영 상의 힘과 연결되는 거겠지요? 인천이 매력적인 촬영 지가 되어 도시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천영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다른 일은 인천에 있는 영상 인력, 즉 젊은 영화인들을 키우 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제작비도 지원 하는 거지요. 더 많은 인천 시민이 다양한 영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천영상위 원회가 이런 역할들을 비교적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인천에서 언젠가 꼭 영화에 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사실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지에 달려 있겠지요. 그래도 언젠가 인천의 섬이 품은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영화감독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가치를 어떻게 평 가하시나요? 서울과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고유한 특 색을 간직하고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간의 깊이에서 비롯된 ‘원도심의 아우라’가 대표적이 지요. 그런가 하면 송도국제도시는 서울의 어느 도심 보다 세련된 풍경이 있고, 강화도 같은 곳은 아직 시골 분위기가 남아 있고요.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 요. 그 바다에 항구와 섬이 있고요. 영화에 필요한 거 의 모든 공간을 갖춘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interview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장에서 배우 김태리와 함께.



추억의 무대 대부분은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부평구 구산동. 분명 고생스러운 기억인데,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노라면 그 ‘웃픈’ 장면들이 아름답고 아련한 한 편의 영화처럼, 동화처럼 그려진다.



지난해 ‘2019 인천국제디자인포럼’에 참여하셨습니 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인천은 시간의 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뜻 비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의 경제 논리만 앞 세워 오랫동안 만들어진 풍경을 무너뜨리면 다시는 복 구하기 어렵습니다. 포럼에서도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 렸고요. 인천이 가진 역사적, 환경적, 예술적 자산들을 관통하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다듬어간다면, 인천만 의 가치를 찾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 들부터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가려진, 인천만의 정체 성에 대해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창 다음 영화를 준비 중이지지요? 새 영화를 포함 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들려주세요. 요즘 ‘교섭’이란 작품의 프리프로덕션 중이어서 정신없이 바쁘네요. 배우 현빈과 황정민의 캐스팅이 확정되어 올 3월부터 촬영을 시작하는데, 해외에서 찍어야 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2007년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 니스탄으로 파견한 선교사들이 탈레반에 피랍된 사건 을, 우리 외교부의 협상 노력에 초점을 맞춰 영화화하 려고 합니다. 이번 영화든 앞으로 만들 작품이든, 감독 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하나예요. 작품을 통해서 대중과 최대한 소통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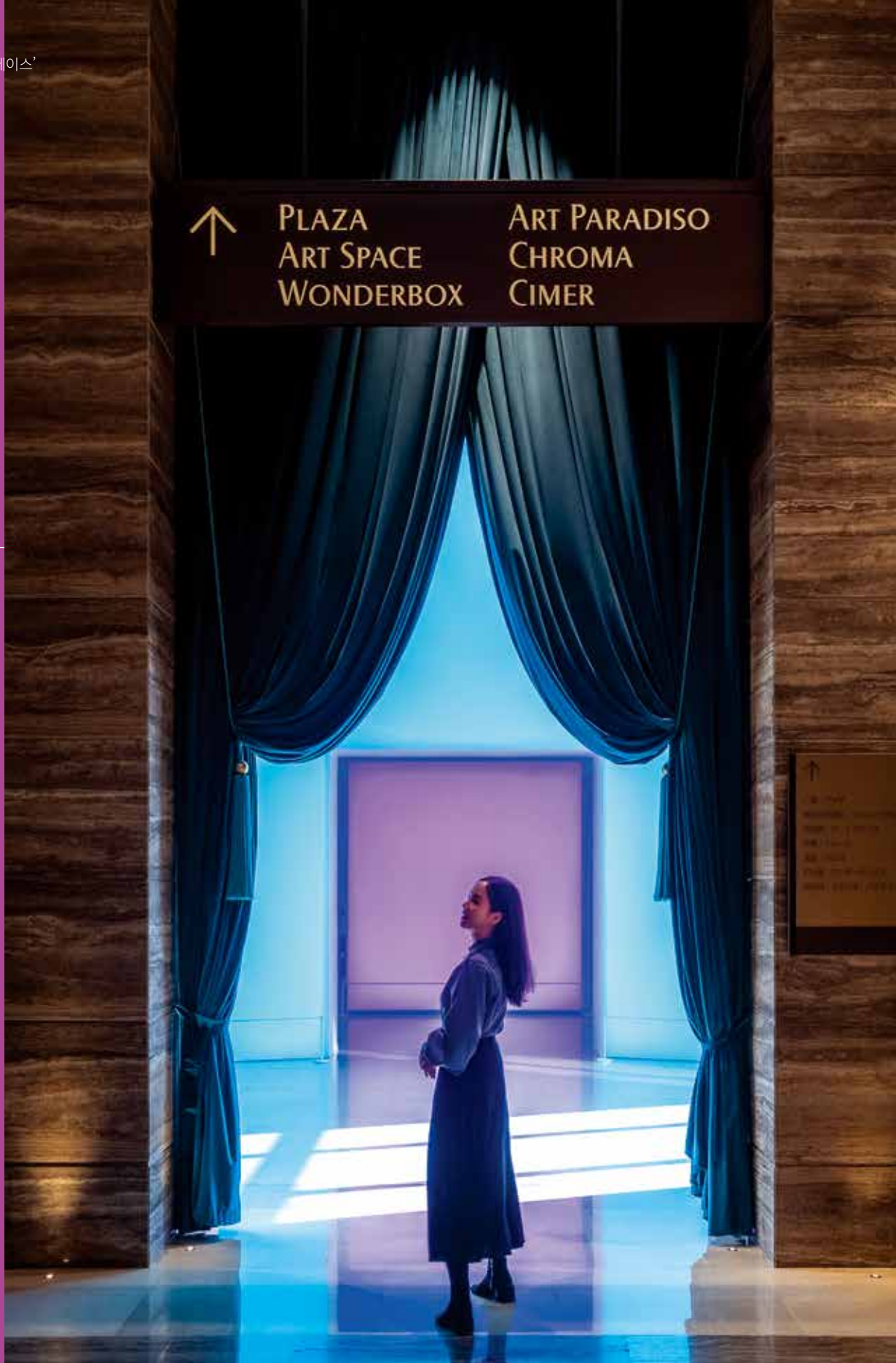
임순례 감독의 이야기는 인천시 발행 단행본 <인천, 사람>에도 담겨 있습니다. 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032-440-8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섬에서  
만나는

## 아트 인천

제이무리 불거리 즐길 거리 많은 인천이지만, 숨은 명소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구석구석 보물처럼 반짝이는 그곳을 특별한 가이드가 안내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와 함께 떠나는 당신이 몰랐던 인천. 그 첫 번째 가이드는 에어로빅처럼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신슬기(21) 씨다.



# PARADISE ART SPACE



### 파라다이스시티 ‘아트 스페이스’

주소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홈페이지 [www.p-city.co.kr](http://www.p-city.co.kr)  
전화 1833-8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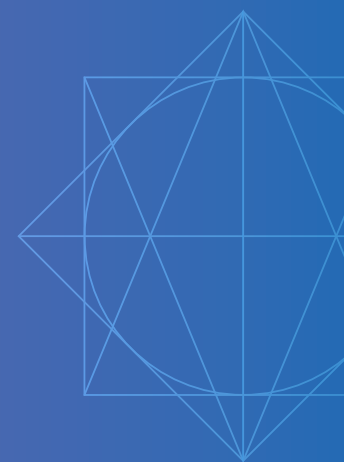
### 2020년, 그 새로운 여행의 시작

가슴 설레는 첫 번째 여행. 출발지는 신슬기 씨가 살고 있는 동네, 계양구 작전동이다. 차도, 사람도 많은 작전역 사거리를 빠져나와 계산동 방향으로 향한다. 이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올라탄 차는 뽕 뚫린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린다. 이 길로 가면 목적지는 딱 하나, 영종도뿐이다.

“계양구는 교통이 좋아 영종도 가기가 편해요.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가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조금 느릴지는 몰라도, 전철 타고 영종대교를 건너는 풍경이 자동차와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차든 전철이든 영종도는 진리다. 어디 도심에서 3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섬이 흔하던가. 그런 점에서 인천은 축복받은 도시다. 각설하고, 슬슬 목적지가 궁금해진다. 겨울 바다라도 보러 갈 참인가. 아니면 인천국제공항에 숨은 명소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다니는 사이 목적지에 도착. 낙원 같은 섬 영종도에 자리한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다.

“이곳에 누구나 부담 없이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작품 ‘조용 : 바라보기’  
관람객을 따라 비추는 거울 조각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 당하는 경험을 준다.



## 고급 리조트에 숨은 럭셔리한 문화 공간

놀랍다. 큰맘 먹어도 한번 갈까 말까 망설여지는 고급 리조트에 열린 문화 공간이 있을 줄이야. 자신 있게 앞장서는 신슬기 씨를 따라 리조트에 입성한다. 화려함을 넘어 찬란하기까지 하다. 멀리 보이는 검은 장막 사이, 화려한 빛이 새어나온다.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미디어 아트 터널을 통과하니 ‘아트 스페이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너른 실내 광장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마치 놀이동산에 온 듯 마주치는 풍경마다 이채롭다.

아트 스페이스 입구는 그야말로 예술적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관람객을 반긴다. 리셉션 앞 전시 공간에서는 미술과 기술이 결합된 신기한 예술 작품이 눈을 사로잡는다.

마침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랜덤 인터내셔널 : 피지컬 알고리즘’ 기획전이 열리는 중이다. 간단한 확인과 안내를 받고 전시장으로 향한다.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의 향연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한편에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되고 있다.

“아트 스페이스는 열린 공간이에요. 오늘처럼 기획전이 열리기도 하고 상설 전시가 진행될 때도 있죠. 상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기획전도 리셉션에서 간단한 멤버십 가입 절차만 마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인천 시민들에겐 너무나도 친근한 섬 영종도, 그곳에서 ‘아트 인천’을 발견했다.

## PARADISE ART SPACE

화려한 빛을 발산하며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미디어 아트 터널



## 인천을 빛내고 싶은 인천의 젊은이

인천시 홍보대사 신슬기

올해 나이 스물한 살. 통통 튀는 인천의 젊은이 신슬기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에어로빅 체조 인천 대표 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당시 소년 체전에 참가할 인천 대표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에어로빅 관련 일에 종사하는 이모가 저를 추천한 거예요. 사실 처음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경기를 관람하고 나서 에어로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로 노력했다. 하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문득 ‘내가 사는 인천을 빛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슴에 스쳤다. 이후 악바리처럼 연습에 매진했다. 지기 싫은 마음에 남들보다 연습을 일찍 시작하고 늦게 마쳤다. 집에 돌아오면 시계는 늘 새벽 2시를 가리켰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 2015년 코리아오픈컵 5인조 은메달, 2016년 전국 체전 2인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제 대회 은메달도 값지지만, 전국 체전에서 동메달을 땀을 때가 더 기뻐요. 신슬기라는 이름보다는 인천을 알렸다는 생각에 가슴 벅찼죠.” 그가 홍보대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인천을 빛내는 일을 하고 싶었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신슬기 씨는 아나운서라는 두 번째 꿈을 위한 점프를 시작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몸소 경험하길 응원하며, 그의 말처럼 인천을 빛내는 일에 앞장서는 홍보대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조사 기관  
(주)리얼미터

[전문가]  
예술 창작, 지역 소통, 광고 홍보, 문학 출판 등 분야별 전문가(4명)  
\* 개별 심층 면접

[시민]  
인천시 거주 20~50대 여성(16명)  
\* 구독자 및 비구독자 대상  
표적 집단 심층 면접

‘오랫동안 소장하고 지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시민의 잡지’.  
가슴 뭉클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전달된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야 할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10~11월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굿모닝인천> 인식 조사. 그 귀한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힘이 되는 목소리부터,  
애정 어린 쓴소리까지

‘시정 소식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5점 만점에 4.5점 이상, 인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정을 천편일률적이고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시가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일반인의 경우 구독자와 비구독자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시정 소식지 역할에 충실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비구독자는 직접적인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을 위한 매체’로서, 시정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굿모닝인천>의 첫인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민들과 정서적으로 맞닿아 있는 매체입니다.”  
“타 시·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 인천을 홍보하고 싶어요.”

✓ 일반인과 전문가 할 것 없이 <굿모닝인천>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사진과 디자인, 인쇄 품질 등 시정 소식지답지 않은 세련된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소장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시정 매거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편집과 구성, 디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준 높은 사진이 가장 눈에 띕니다.”  
“매 호, 세심히 공들여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인천의 감성과 가치를 잘 드러내는 편집과 구성, 세련된 디자인 등이 눈길을 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물과 장소의 특징을 잘 살린 수준 높은 이미지가 <굿모닝인천>, 나아가 인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민들도 잘 몰랐던 인천의 다양한 인물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인천의 발전상과 보이지 않는 원도심의 이야기를 조화롭고 균형있게 담고 있습니다.”

✓ 인천에 내재된 역사와 가치 있는 장소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균형감 있는 내용 구성이 인상 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이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외부 기고 콘텐츠에 한해 인천과 연관성 없는 내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타 시정 소식지와 차별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매체는 예술성이 있어요.”  
“앞서가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잘 만들어진 매체입니다.”

✓ <굿모닝인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와 비교해 가장 앞서나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락 요소 및 실용적인 정보가 많은 시정 소식지가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난 후, 인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좋아졌다 48.6%  
좋아졌다 44.3%  
특별한 변화가 없다 6.8%  
안 좋아졌다 0.2%  
매우 안 좋아졌다 0.1%



✓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매우 좋아졌다’ 48.6%, ‘좋아졌다’ 44.3%로 10명 중 약 9.3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안 좋아졌다’와 ‘매우 안 좋아졌다’는 0.3%에 불과,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굿모닝인천> 독자 설문조사 결과(2019.1~11)

지금보다 나은 <굿모닝인천>, 인천의 자부심이 되는 매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제호와 내용,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굿모닝인천>은 본래 1994년 <내 고장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창간했습니다. 이후 2001년 3월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호의 경우 지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에서는 각 지역 특징을 살린 구성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친근감 있는 제호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콘텐츠에서는 현재 기조를 지키되, 신도시의 특색을 살린 기획 기사로 인천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로운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겠습니다.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점은 무엇인가요?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생지 사용,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의 지질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독자층을 배려한 판형의 변화, 연령별 관심사에 따른 섹션 구분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월호부터 <굿모닝인천>의 판형과 종이가 변경됩니다. 보다 커진 책자를 통해 시각적 여유로움을 확보하고 디자인 다변화를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인쇄 품질 우수성을 높일 수 있는 종이 변경으로 매체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인천 사람’이라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나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코너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 인천시 홍보대사가 소개하는 인천 등 신규 시민 참여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인천시 정책을 쉽게 알아 가는 ‘인천능력시험’, ‘정책 Q&A’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민 시장’, ‘인천 사진관’, ‘드로잉 인천’ 등은 유지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독자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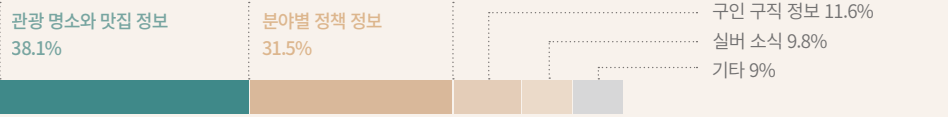
주요 독자층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함께 젊은 독자들에게 대한 접근성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의 연계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확대를 위해 <굿모닝인천>만의 독자적인 SNS 신설,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신규 채널 구축, 영상 콘텐츠와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자책과 함께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접하고 싶은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굿모닝인천>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 유형은 인천의 숨은 관광 명소와 맛집 정보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정책 정보가 31.5%로 뒤를 이었으며, 청년 취업과 경력 단절 시민에게 도움 되는 구인 구직 정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소식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 <굿모닝인천> 독자 설문조사 결과(2019.1~11)

1994년부터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짜 인천’, 진솔한 인천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담아 온 <굿모닝인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시정을 가까이 전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시민의 잡지’가 되겠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주안염전의 추억

글 박병상 환경운동가

인천에서 태어나 군 생활을 제외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며 환경 운동을 하는 생물학 전공 서생이다. 생태학적 다양성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사람의 삶도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생태주의 시각으로 강의하고 있다.



1907년에 조성된 주안염전  
출처: 화도진도서관

신간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이야기>를  
발간한 것을 포함해 10여 권의 책을 펴냈다.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가 방문한 1966년 이후였을까? 6차선 경인국도의 2차선만 겨우 포장된 도로의 가장자리는 우마차가 점령한 시절일 거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을 연속 제패한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928 서울 수복 기념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던 때, 경인국도 좌우는 눈과 발이었다. 주안의 눈발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사라졌다. 무심결에 주안의 눈발을 보았을 아베베 선수가 운동화를 신고 선두로 뛸 때 김정 고무신을 신은 조무래기들은 아베베를 따라 쫓르르 내달렸다.

지금 젊은이들의 문화 창작 지대를 예쁘게 꾸며놓은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주변은 2000년까지 시민회관이 자리했고, 시민

회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이자 꼬맹이들의 놀이터였다. 모기장 천으로 자루처럼 만든 잠자리채, 문방구에서 파는 요즘과 같은 상품이 아니었다. 온 동네 거미줄을 덕지덕지 묻힌, 배드민턴 라켓 비슷한 잠자리채를 들고 논 가장자리의 물웅덩이 근처를 살금살금 고개 숙여 걸으면 낮지만 빠르게 날아오는 왕잠자리를 만날 수 있었다. 이승엽 선수처럼 휘두르면 소용없었다. 꼬마보다 빠르게 날아 냉큼 달아났다.

왕잠자리 잡다 지겨우면 주안역을 넘었다. 간이역보다 소박했던 주안역을 넘으면 염전이 펼쳐졌다. 인천 사람의 애환, 바다가 지척이지만 수영을 배우지 못했다. 바닷물을 담아놓은 저수지에서 여름방학을 보낸 우리는 물에 동동 뜨니 수영 따위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저녁 무렵 우리들 손에는 망둑어 한 사발 담은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분명히 놓쳤는데, 입이 찢어진 채 다시 올라온 망둑어, 혹시 짱뚱어는 아니었을까? 체계적으로 보전하기에 순천만에 겨우 남은 짱뚱어가 주안 갯벌을 돌아다녔을까?

아베베와 잠깐 같이 뛰던 시절, 경인국도 남쪽의 밭에 보리가 자란 무렵이니 봄일 텐데, 그 사이를 기어 다녀도 바깥에서 보이지 않았다. 한바탕 보리 수확을 마치고 채소가 자랄 즈음이면 우리는 코를 막아야 했는데 웬지 조용했다. 잘 삭은 거름을 뿌려놓은 밭은 개구쟁이들을 받아주지 않아 우리는 골목에서 자치기에 열중했는데, 짐칸이 올라가는 트럭을 처음 보았다. 방치되던 보리밭에 커다란 트럭들이 모여들어 흙을 토해내는 게 아닌가. 이후 보리밭은 상자처럼 다다다닥 붙은 집들로 바뀌었다.

술자리의 어른들이 주안염전이 공업단지로 바뀐다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주안공업단지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 살 집을 그렇게 지었고 우리는 놀이 공간을 거둬 잃어야 했다. 경인국도 북쪽의 논도 그 무렵 매립돼 주택으로, 교회와 은행으로 거꾸 바뀌었으므로. 1960년대, 조무래기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입시에 매달려야 했다. 이후 동네는 몰라보게 바뀌었지만 관심 밖이었다. 겨우내 썰매 지치고 스케이트 타던 들판은 온통 주택으로 변했는데, 청소년이 된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역지로 보류했다.

고교 시절 만난 친구들은 목표가 뚜렷했다. 좋은 대학을 거쳐 좋은 직장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초석 쌓기에 매진했다. 모두 성공한 건 아니더라도 대개 그 길로 들어섰다. 국가의 발전이 내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젊음을 투신하며 지역보다 중앙에 진출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세대 이상 흐른 지금, 인천다움을 잃은 인천에서 주안의 옛 모습은 찾을 길 없다. 서울, 부산, 광주, 부천, 그리고 인천, 겉모습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가? 직장이나 아파트 때문에 이사한 인천 시민 중에 자식과 지역에 남으려는 이를 만나기 어렵다. 발전은 옳은 일, 돈 많이 벌면 좋은 일이라 믿고 살아온 지 50여 년이 지나자 돈보다 건강, 내 발전보다 자식과 이웃의 행복이 훨씬 살가운 일이라는 걸 되새기게 된다.

## 안전해서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하여

도시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3팀의  
조설 순경.



시민 시장  
조 설

●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24시간 대기하다  
사건이 터지면 3분 안에 출동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운명이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대체 내가 이 자를 어떻게 잡은 거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범인을 체포할 때마다 신기하기만 하다. 머리카락 한 올, 담배꽂초, 발자국 같은 작은 단서만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선배들도 선배들이지만, 형사팀에 합류해 미궁 속에 숨어 있던 범인을 검거할 때마다 자신의 능름한 모습이 대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경찰이 맘만 먹으면 범죄자는 반드시 잡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형사3팀 조설(33) 순경. 그는 형사과에 근무하며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인천에서 유일한 여자 형사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 세계대회 동메달 수상, 무도 특채로 경찰 입문, 경찰 홍보 모델 등 경력이 여간 화려한 게 아니다. 인천의 중심지인 만큼 남동경찰서 업무는 ‘빽세기’로 유명하다. 워라밸은 언감생심.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24시간 대기하다 사건이 터지면 3분 안에 출동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운명이다. 경찰 경력 4년이던 지난해 1월. 경찰이라면 대부분 기피한다는 인천남동경찰서를 지원한 이유는 뭘까.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제가 성장한 도시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이 인천으로 온 이후 그는 인천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언론에선 인천을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도시로 묘사하기 일쑤다. 이는 방송사 등이 밀집한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심하기 때문일 뿐 인천이 그렇듯 삭막한 도시는 아니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선학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한 태권도가 결실을 본 건 우석대 태권도학과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되면서다. 이후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실업팀에 4년 정도 몸담고 있었을 때였다. “저보다 6개월 앞서 경찰이 된 동생이 말하더군요.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직업이니 누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스물여덟 살이 되던 해 조 형사는 동생과 같은

길에 들어선다. 동생 조건희(28) 형사는 같은 사무실 형사2팀에 근무 중이다. “제 자리에서 뒤로 고개를 돌리면 동생이 있어요. 한 식구이다 보니 사건이 터지면 집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곤 합니다.”

여형사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여성을 적극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여성이 옷을 벗은 채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현장에 출동했는데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애길 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병원으로 호송한 적이 있어요.” 조 형사의 소망은 멋진 형사 생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후 기회가 온다면 중앙경찰학교나 경찰대학 등 경찰양성학교의 무도 교관으로 문무를 겸비한 경찰을 양성하고 싶다고, 키 177cm. 경찰 홍보 모델을 할 만큼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임에도 그에겐 아직 ‘피양세’가 없다. 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무서운 형사에서 수줍은 요조숙녀로 변신한다. “경찰 일을 이해해 주는 다정 다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키는 180cm 이상이어야 저와 맞을 것 같고요, 하하.”





2020 January

01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b>북한 공훈예술가 화봉 황영준 유작전</b> 1월 30일(목)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b>랜덤 인터내셔널 : 피지컬 알고리즘</b> 1월 31일(금)까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b>드림포커스클럽 사진 정기전</b> 1월 31일(금)~2월 6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b>한경희 : 여러 날의 낮과 밤</b> 1월 31일(금)까지 서운갤러리
	<b>조세민 : 미미팩토리(微美factory)</b> 1월 31일(금)까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b>수평적 세계를 꺼안는 방법</b> 3월 15일(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b>루크 제람 : 달의 미술관</b> 1월 31일(금)까지 파라다이스시티	

※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공연

<b>04 토</b> 정글 헌터 어드벤처 ‘백설공주 편’ 남동소래아트홀 소극장 1월 4일 오후 2시·4시 1월 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4,000원 ① 1544-1555	<b>09 목</b> 김효정 오카리나 독주회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2만원 ① 010-9123-9181
<b>아쿠아 쇼</b> 트리플스트리트 케이 라이브 1월 4일, 11일, 18일, 27일 오후 2시·4시 전석 2만5,000원 ① 032-310-9691	<b>12 일</b>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b>05 일</b> 하모니시스트 이윤석 하피스트 방선영 듀오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b>아기돼지 삼형제 외 1편 (에벌레의 여행)</b> 검단복지회관 공연장 오후 1시·3시 전석 8,000원 ① 032-993-9733

<b>15 수</b> 2020 한국골프장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2홀 1월 15일~17일 오전 9시~오후 6시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① 031-338-7805	<b>가족 뮤지컬 ‘미녀와 야수’</b>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0시 10분·11시 10분 개인 1만원, 단체 7,000원 ① 070-7666-7915
<b>16 목</b> 2020 부평아트센터 신년 음악회 with 국립오페라단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① 032-500-2000	

17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2020 신년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① 1588-2341

18 토

1월의 굿모닝컬처데이 공연

2020 신년 콘서트  
‘VOICE OF THE MASTERS’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① 1588-2341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월 18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1월 1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3만원  
① 031-294-4232

2020 아트센터 인천  
신년 음악회  
아트센터 인천  
오후 5시  
전석 2만원  
① 032-453-7700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신년 음악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R석 2만5,000원,  
S석 1만5,000원  
① 032-460-0560

19 일

인천예총 초청  
‘더스트링 오케스트라 자선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30분  
전석 무료  
① 032-873-5174

22 수

어린이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월 22일, 29일~30일 오전 10시 30분  
전석 1만원

29 수

어린이 국악 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한중문화관  
1월 29일~30일  
오전 10시 20분·11시 20분  
전석 3만원  
① 02-6224-9039

30 목

1월 유모차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챔버홀  
오후 3시  
어른 5,000원,  
아이 1,000원  
① 032-289-4275

굿모닝컬처데이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인천>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0만 시민 여러분께 매월 문화를 선물합니다.

‘다섯 글자로 새해 희망 메시지’를 보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인천문화 예술회관 신년 콘서트 ‘VOICE OF THE MASTERS’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5명, 각 2매씩)

| 보내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

\*성명과 주소, 휴대폰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2020 신년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신년 콘서트로 2020년의 시작을 알린다. 돌아온 뮤지컬 디바 차지연, 뮤지컬 ‘영웅’으로 감동을 선사한 양준모, ‘팬텀싱어2’가 낳은 스타 미라클라스, 팝페라 아티스트 아리현 그리고 코리아콥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천상의 하모니를 연출한다. 2020년도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준비를 마친 인천문화예술회관. 새해, 특별한 콘서트로 한 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자.

일시 1월 18일(토) 오후 7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1588-2341

2020 신년콘서트  
VOICE OF THE MASTERS  
2020년 1월 18일(토) 오후 7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

지금과 머지않은 시절, 공업의 역사는 오늘의 인천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 그 속에 투영된 노동자의 삶에서 새로운 ‘민속’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인천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진행된 두 번째 전시,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이 2월 16일까지 펼쳐진다.

글 송완식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 류재형 사진가, 인천시립박물관

The History of Incheon and  
The Builders Incheon  
인천의 역사

##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

장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기간 2월 16일(일)까지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관람료 무료



## 파란만장했던 인천의 공업 역사

1950년 인천은 대일항쟁기의 왜곡된 공업 구조를 극복하고 6·25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때 제분 공장  
과 방직 공장, 중공업 공장이 우리의 힘으로 재건되고 복구됐  
으며, 1957년에는 인천 판유리 공장도 탄생하게 된다. 1960년  
대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가 요동치고 인  
천의 지역 경제 역시 고도성장의 길에 접어든다. 부평과 주안  
에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인천은 다른 도시들에 비  
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공업화가 이뤄진다.  
1970년대 이후 인천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석유 화  
학, 조립 금속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  
가 재편된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오늘날은 첨단 산업 성장이  
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화장품, 바이오, 로봇 산업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인천 공업의 발전사는 바로 끊임없는 ‘도전  
과 응전’ 그 자체였으며, 대한민국 경제사에 있어 매 순간 인천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증명한다.



## 산업화의 역군에서 민주화의 주역으로

인천은 개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 문물의 유입과 인천  
항 건설, 공단 형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다. 먹고살  
기 위해 사람들이 인천으로 모여들었다. 노동자들은 고향에 있  
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린 노동자  
들은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약학 등을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인천을 무대로 일하고 생활하며 새로운 꿈을  
위해 노력했다. 소박한 삶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났다.  
허나 이들 손으로 일궈낸 고도성장은 노동자 생활의 질 향상으  
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일 근무와 잔업, 철야 노동은 일상이 됐  
고, 여성은 남성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요  
구하며 목소리 높이를 주저하지 않았다.  
1986년 5월 3일,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인 인천5·3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인천 지  
역노동자연맹은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요구했다.  
이는 1987년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인천 노동자들은 산업  
화의 역군에서 민주화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 노동자의 삶이 곧 인천의 민속 문화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이란 제목의 전시를 따라가  
다 보면 인천의 민속 문화는 아득히 먼 시간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천의 노동자들이야말  
로 진정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증인이자 주역이다. 인천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정착한 노동자들의 삶은 인천의 민속 문화  
로 자리 잡았다. 이토록 역동적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  
리의 삶 역시 인천의 민속 문화로 이어져 새로운 인천의 내일을  
완성하는 저력이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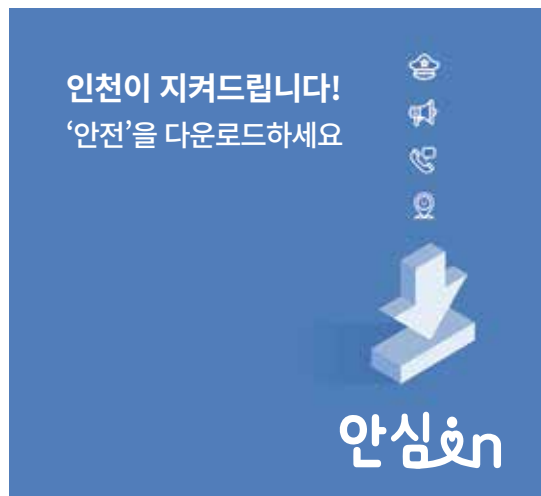


- 1. 1960년대 경인사이다 상표
- 2. (주)삼익약기의 크로마하프
- 3. 건설플랜트의 노동자 서재훈 씨
- 4. 옛 일진전기 앞에서, 노동자였던 정대현 씨
- 5. 인천5·3민주항쟁, 1987년, OBS 제공





## IMAGE NEWS



#시민 안전 지키는 애플리케이션 '안심in'  
#안심 귀가, 긴급 도움 요청 등 #다양한 생활 안전 서비스  
#인천 전역 확대 시행

01



#24시간 운영되는 CCTV도  
#1만2,600대 운영 중 #낡은 것은 고화질로 교체  
#2030년엔 2만 대로 확대 예정

02



#우리 동네 편의점이  
#긴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심 지킴이 집으로  
#2030년까지 1,000개로 확충 목표

03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셉테드, CPTED) 종합 계획 착수  
#원도심 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일석이조 효과로  
#안전한 우리 동네

04

안심in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 인천 뉴스 +

- + 1939년 대일항쟁기 조병창부터 광복 이후까지 주한 미군 기지로 사용된 인천 캠프 마켓이 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80여 년의 긴 장벽을 깨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 + 우리 시는 시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심인(in)' 서비스를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 + 동구는 구에 있는 유일한 섬 작약도의 이름을 물치도(沓湍島)로 바꿀 계획이다.
- + 차량을 탄 상태로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달부터 24시간 운영된다.
- + 우리 시 올해 국비 확보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 + 인천 지역의 오래된 가게인 '노포'가 앞으로는 '이어가게'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 +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시행하는 인천시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NEWS BRIEF

‘인천 캠프 마켓’ 80년 만에 시민 품으로



1939년 대일항쟁기 조병창부터 광복 이후까지 주한 미군 기지로 사용된 인천 캠프 마켓이 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80여 년의 긴 장벽을 깨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부평 캠프 마켓을 비롯해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동두천 캠프 호비쉐아 사격장 등 폐쇄된 미군 기지 4곳을 즉각 반환하기로 했다.

캠프 마켓 모든 부지 반환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당장 올해부터 부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본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캠프 마켓 부지 면적은 44만m<sup>2</sup>로 지난 2002년부터 1단계(22만4,000m<sup>2</sup>)와 2단계(21만6,000m<sup>2</sup>)로 나누어 각각 반환이 추진되어 왔다. 다이옥신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1단계 일부 부지는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단계의 경우 현재도 미군에 공급되는 빵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올 8월 이후에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캠프 마켓을 지역 주민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매월 한 차례 시민 투어와 전문가·시민 공동 토론을 개최해 2021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시 부대이전개발과 032-440-4662

시민 지킴이 ‘안심인(in)’ 서비스 확대

우리 시는 시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심인(in)’ 서비스를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안심in은 범죄를 예방하고 24시간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된 생활안전 공공 앱으로 긴급 도움 요청, 내 친구 위치 보기, 주변 안전 영상 CCTV·지구대 조회 등의 기능을 갖췄다. 특히 안심in의 ‘안심귀가’ 기능은 사용자가 혼자 밤길을 건너나 귀가할 때 도착지를 설정하면, 사전에 등록해 둔 가족·친구에게 실시간으로 내 위치가 보이고, 위급 상황 시에는 인천의 10개 군·구마다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시 재난상황과 032-440-5739



유해물질 꼼짝마, ‘제품극미량분석센터’ 개소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에서 섬유 및 장신구 분야 기업·소상공인들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제품극미량분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장비 최적화 및 시운전 단계를 거쳐 오는 2월 초부터 인천 지역의 섬유 제품, 장식품의 생산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험 분석, 유해물질 검출 원인 분석 및 솔루션 제공 등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테크노파크 제품극미량분석센터 032-260-0843

‘작약도’, 본래 이름 ‘물치도’로 변경 추진



동구는 구에 있는 유일한 섬 작약도의 이름을 물치도(勿湫島)로 바꿀 계획이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지명 변경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해 회의를 열고 고문헌과 고지도에 실린 이 섬의 지명 유래 등 여러 자료를 공유했다. 동구는 행정구역상 동구 만석동에 속하는 작약도의 지명이 대일항쟁기 때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유의 이름인 물치도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지역 향토사학회는 ‘물치’가 밀물 때 섬 주변에 물고랑이 생기며 섬을 받치는 지형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구청 032-770-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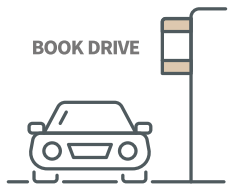
차 타고 도서 대출 가능한 ‘북 드라이브’ 도입

차량을 탄 상태로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북 드라이브 시스템’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북 드라이브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북 드라이브용 도서를 예약하면 24시간 아무 때나 차량에 탄 상태에서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차를 타고 있지 않더라도 북 드라이브 시스템 부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약한 도서를 대출 또는 반납할 수 있다.

미추홀도서관은 이달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서관정보시스템 개발사와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에 대해 공동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미추홀도서관 032-440-6612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시 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시행하는 인천시의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서구 석남역 일원 21만3,000m<sup>2</sup> 부지에서 추진되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580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보육시설인 석남거북이기지 조성,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조성,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 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56

우리 시 국비 4조원 시대 ‘활짝’



우리 시 올해 국비 확보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시는 국고보조금 3조7,001억원, 보통교부세 7,200억원 등 2020년 국비 예산으로 총 4조4,201억원을 확보했다.

시가 확보한 주요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첫 번째 구간인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원이 있다. 이 밖에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 진입도로 개설,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원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짓는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59개 사업에 걸쳐 654억원을 새로 확보하기도 했다. 기존에 추진되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청라 연장 사업,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드론인증센터 및 전용 비행장 구축,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인천발 KTX 사업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시 재정관리담당관 032-440-1665



지방자치단체 혁신 ‘전국 최우수’ 선정

우리 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19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인천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주요 정책의 시민 참여 확대, 최신 정보통신기술-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혁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천대길병원과 공동 추진한 ‘닥터카’ 사업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 혁신담당관실 032-440-1642

팔미도 등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현장 조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 등대(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0호)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史蹟)으로 등록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 시는 시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에 시 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435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연구 센터 송도 건립 ‘확정’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연구센터가 올해 하반기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대학교와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입주와 지원 협약을 맺었다.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센터는 앞으로 국내 대학이나 관련 기관들과 함께 스마트시티 기술과 도시 환경, 스마트시티 통합과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연구를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403

IFEZ ‘식도락 여행’ 맛집 안내 책자 제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영종·청라 지구에서 내·외국인 방문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식도락 여행’ 책자 3,500부를 제작·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음식 맛이 좋고 위생적이며 분위기가 독특해 추천된 음식점 139곳의 대표 음식 및 내·외부 사진, 위치, 가격 등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으며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 병기되어 있다. 책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문화 관광·관광 가이드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944

UN 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성공

우리 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

이번 CTCN 지역사무소 유치에 따라 인천은 GCF(녹색기후기금)와 더불어 세계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국제기구가 집적화된 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인천 송도에 있는 GCF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라면 CTCN은 기술 이전을 주요 업무로 한 기구다.

시 녹색기후과 032-440-8592

‘노포’ 말고 ‘이어가게’로 불러주세요

인천 지역의 오래된 가게인 ‘노포’가 앞으로는 ‘이어가게’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어가게’는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가게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시는 오래된 가게를 지칭하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노포(老舗)’를 대신할 인천만의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해 지난해 시민 공모전을 열었다. 시는 영업을 시작한 지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가게 중 매년 권역별로 10곳을 이어가게로 선정하고, 홍보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또 이어가게를 상징하는 문양을 제작해 서적과 지도 등 각종 지역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인천의 허파 도시 숲 50곳 조성한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녹색 공간 확보, 도시 생태계 기능 회복 등을 위해 도시 숲길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 수인선 유희부지 등 50곳에 25만7,000m<sup>2</sup> 규모의 도시 숲길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녹지정책과 032-440-3692

알고 보면 쉽다! 궁금한 정책 Q&A

공해 차량 운행 제한

- Q. 평상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란 무엇인가요?**
- A.**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Q. 비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 A.** 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말합니다.

- Q.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관련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에서 알 수 있습니다.

- Q. 운행 제한에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평상시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과태료 2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발령 시 위반한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은 어디인가요?**
- A.** 인천에는 총 22개 지점에 공해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지점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 → 환경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UNCIL NEWS

지난해 의정활동 ‘눈에 띄네’



인천시 제8대 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개원 이후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온 의정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조례안 259건, 결의안 및 건의안 42건의 안건을 의원 발의했고, 현장 방문 75회, 의원 연구단체 10개를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면 기획행정위원회 43건, 문화복지위원회 32건, 산업경제위원회 49건, 건설교통위원회 37건, 교육위원회 37건, 운영위원회 4건, 기타 위원회 제안 57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가장 많은 소관 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로 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인천광역시 의원들은 연구단체 10개를 구성해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안병배·박종혁 의원, 대통령상 수상

지난해 12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화 공감 강연회 및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지역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안병배 부의장과 박종혁 문화복지전문위원장이 의장(대통령)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14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심사의결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 승인에 관한 건과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따른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2019년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모임’ 등 9개 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 사항과 2020년도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된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등 14개 단체의 활동 계획 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올해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이후 최다 등록 건수인 14개 단체가 등록했다.

한편 2019년 활동 결과 보고서는 시 집행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해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계획이다.

이웃사랑 기부금 1,240만원 전달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사랑의 쌀’ 기부금과 ‘크리스마스 쌀’ 성금을 합쳐 총 1,24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결핵협회에 전달했다.

‘사랑의 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어려운 이웃 350세대에 쌀 1포(10kg)씩 전달되고, 크리스마스 쌀 성금은 결핵퇴치 기금으로 활용된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식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제2회 청소년 의회 체험 우수 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의정 아카데미 청소년 의정 교실과 본회의 체험 교실에 참가한 청소년 2,000여 명의 소감문을 심사해 최우수 학생 50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9일 의정활동 일환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인 남동구 남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남촌동 17만㎡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등 총 7개 건물을 짓는 사업은 당초 이달 중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과 예산 150억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시의회 건교위 의원들은 연장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의원들은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뒤 질의응답 등을 통해 안전 관리 실태를 살폈다.

교육위, 3월 개교 예정 아암초 등 학교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5일 오는 3월 개교 예정 학교인 아암초, 경연초중, 서희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학교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 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는 공사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열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행정위 회의실에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완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인천시 남동구 지역을 4개 구간으로 나눠 보행 약자의 보행 환경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보행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보행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보행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버스 정보 음성 안내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분야의 신품 교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통일된 세부 기준 마련, 전문기관 설치 등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교통 약자들의 소외되지 않는 보행 환경이 구축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광역시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① 032-440-6137~8 ② www.icouncil.go.kr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작가의 말  
걸어 만난 동네, 배다리생태동산

저절로 자란 풀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내고, 틈바구니 정성으로 심고 가꾼 채소 몇 포기로 흉내 나는 미소를 나누는 마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산을 사이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 하루를 열고 정감 있는 손짓으로 저녁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동네.  
걸어 만난 동네, 배다리생태동산을 그리다.



배다리\_사진 류창현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박경현 연수구 원인재로



강윤옥 대전시 동구



박양순 계양구 주부토로



서점식 미추홀구 인주대로



김진아 미추홀구 경원대로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3) 기간 : 2020년 1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이창구 작가

3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1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미술 교육과 전통 회화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권위 있는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다채로운 전시 기획으로 미술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는 도든 아트하우스 관장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폭력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 수행 기관 : (사)해피패밀리 인천남부지부 부설 폭력예방 교육전문기관 하모니  
교육 기간 : 1월~11월  
교육 대상 : 폭력 예방 교육 비의무 대상인 성인 20명 이상  
\*교육 의무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교육 시간 : 1시간~2시간  
교육비 : 무료  
신청 방법 : ☎ 1661-6005   🖥 harmonyincheon.modoo.at  
문의 : 인천 지역 교육 지원 기관 하모니 ☎ 032-861-2706

02 취업으로 가는 길을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 : 청년층(만 18~34세), 중·장년층(만 35~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지원 내용  
\*1단계 : 진로 상담, 직업 심리 검사, 개인별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  
\*2단계 : 직업 능력 증진(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 훈련 참여)  
\*3단계 : 집중 취업 알선, 입사 지원서 클리닉, 모의 면접, 동행 면접 등  
신청 방법 : 🖥 injob.zeniel.co.kr 및 오프라인  
장소 :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산빌딩 502호  
문의 : (주)제니엘 인천북부지점 ☎ 032-281-1443

03 작가와 함께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조세민 작가의 전시 미미팩토리(微美 factory) 프로그램을 통한 ‘팩토리 가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육 일정 : 1월 4일, 8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교육 대상 : 10세~13세 어린이 동반 10가족(1가족 1작품)  
교육 내용 : 전시에 활용된 키네틱 아트(모터 작동 작품) 만들기  
신청 방법 : 🖥 icmuseum.incheon.go.kr  
참가비 : 무료  
문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032-440-6750

04 인천시청에 답이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운영 기간 : 연중(전문 분야별 상담 일정 확인)  
설치 장소 : 시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 대상 : 시민, 기업체 운영자 등  
상담 내용 :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소비자 상담 등  
문의 : 시 시민봉사과 ☎ 032-440-2468

05 시티 투어 버스, 잠시 쉬어갑니다

인천 시티 투어 노선 전면 개편에 따라 시티 투어 운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운행 중지 기간 : 1월 1일~2월 29일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032-440-4102

06 건강한 성문화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성교육 전문 강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 1월 2일~20일  
모집 인원 : 30명  
교육 기간 : 2월 1일~23일(매주 주말)  
수강료 : 30만원(교재비 포함)  
제출 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교육 시간 : 1월 6일~3월 21일(3개월 과정)  
문의 : 인천 지역 교육 지원 기관 하모니 ☎ 032-861-2706

07 똑딱똑딱, 나무 공방으로 초대합니다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2020년 1월 프로그램 예약을 접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약 방법 : 🖥 reserve.incheon.go.kr  
현장 접수 : 각 실별 회당 5명(주말), 정원 미달 시 현장 접수 가능(평일)  
운영 방식 : 평일은 단체, 주말은 개인 및 가족 단위  
\*은행나무공방 : 초등학생~성인, 1회 90분 수업, 체험료 2,000원+재료비  
\*느티나무공방 : 4세~7세, 1회 60분 수업, 체험료 1,000원+재료비  
\*구름나무놀이터 : 36개월~6세, 1회 90분 수업, 체험료 2,000원  
문의 : 인천대공원사업소 ☎ 032-440-5888

08 농촌 지역 발전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2020년도 농촌 진흥 분야 시범 및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분야 : 식량 축산, 소득 작목, 인력 개발, 스마트 농업, 자원 활용, 도시 농업  
내용 및 대상 : 20개 사업 47개소  
세부 내용 : 🖥 agro.incheon.go.kr에서 확인  
사업 설명회 : 1월 6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 1월 6일~21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문의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032-440-6905

09 알수록 흥미로운 우리 전통문화

월미문화관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기간 : 1월 6일~2월 8일  
장소 : 월미문화관 세미나실 2층  
대상 : 인천 시민  
강사 : 한국전통문화예절원협동조합 소속 전문 강사(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참가비 : 각 강좌별 1만원(지각 없이 참석 시 100% 환급)  
접수 방법 : ☎ 032-565-5702  
문의 : 월미공원사업소 ☎ 032-440-5917

10 초록학교에서 환경과 놀아요

인천녹색연합에서 초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초록동무]

날짜 : 3월~11월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대상 : 7세~12세 가족 회원(350명)  
장소 : 거주 지역의 숲과 공원  
내용 : 어린이 숲 생태 교육  
비용 : 무료

[게논]

날짜 : 3월~11월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대상 : 13세~15세 가족 회원(100명)  
장소 : 영종도 갯벌  
내용 : 청소년 갯벌 생태 교육  
비용 : 1회당 약 2만3,000원

[또랑]

날짜 : 3월~11월 매월 세 번째 일요일  
대상 : 15세~19세 가족 회원(100명)  
장소 : 굴포천  
내용 : 청소년하천생태교육  
비용 : 1회당 약 1만3,000원

문의 : 인천녹색연합 녹색교육팀 ☎ 032-548-6274





11 방송인의 꿈, 현실로 만드세요

인천 지역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2020년 1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지원 자격 : 만 18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모집 기간 : 1월 20일~2월 7일

원서 접수처 : 교무실 방문 접수

등록금 및 수업료 : 무료

문의 : ☎ 032-629-7777, 1544-1294

[인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 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모집 기간 : 2월 10일~21일

원서 접수처 : 교무실 방문 접수

등록금 및 수업료 : 1년 기준 15만원 내외

(단 2, 3학년은 무상 교육)

문의 : ☎ 032-810-6337~9, 1544-1294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 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모집 기간 : 2월 3일~3월 6일

원서 접수처 : 교무실 및 행정실 방문 접수

등록금 및 수업료 : 1년 기준 7만원 내외

문의 : ☎ 032-770-4741, 1544-1294

12 빈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빈집을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심사할 시민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빈집 활용 최종 우수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시민 평가단 모집(30명 예정)

신청 방법 : ☎ iuri.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 iuri2323@daum.net 제출

신청 기간 : 1월 5일까지

행사 일정 : 1월 15일 오후 2시~5시

행사 장소 : 시청 2층 대회의실

문의 :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 ☎ 032-428-2323

13 우리 동네 도서관 겨울 방학 문화 행사

[미추홀도서관]

동화랑 영화랑

일시 : 1월 13일~16일 오후 2시~4시

대상 : 예비 초등학생 1~3학년 20명

문의 : ☎ 032-440-6667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우리

일시 : 1월 13일~16일 오후 2시~4시

대상 : 예비 초등학생 4~6학년 20명

문의 : ☎ 032-440-6667

겨울 방학 독서 교실 어린이 연극단

일시 : 1월 13일~17일

대상 : 초등학생 3~4학년 20명

문의 : ☎ 032-440-6668



[청라호수도서관]

겨울 독서 교실

일시 : 1월 13일~16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20명

문의 : ☎ 032-563-8126



[청라국제도서관]

겨울 독서 교실

일시 : 1월 7일~10일 오전 10시~오후 1시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20명

문의 : ☎ 032-562-1879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일시 : 1월 9일~30일(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20명

문의 : ☎ 032-562-167

어린이 뉴터러시 특강

일시 : 1월 14일~16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20명

문의 : ☎ 032-562-167



BOOK INFO

OLD  
BUT NEW

168쪽, 비매품  
퍼낸 곳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오래된, 그래서 새로운 인천을 기록하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존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의 속살을 들여다본다. 지난했던 개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주역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빛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역동적인 변천사 속 인천의 가치를 조명한다. 인천이 걸어온 길, 그 시간과 공간의 여정을 차분히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뿌리박힌 도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늘 곁에 있기에 알지 못했던 오래된, 그래서 새로운 인천의 이야기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인천,  
사람

180쪽, 비매품  
퍼낸 곳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사람’으로 ‘인천’을 듣는다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혹은 한 시절 잠시 머물렀던 20명 ‘인천 사람’들이 품은 가슴속 인천 이야기를 담았다. 인천과 인천 사람에 내재된 가치를 글과 그림, 몸짓으로 풀어내는 예술가부터 도시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지역 활동가, 미디어를 통해 인천을 알리는 방송인, 땅과 바다, 하늘로 대변되는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에서 일하는 시민까지. 닮은 듯 다르고, 익숙한 듯 새로운 ‘인천 사람’ 아니, 우리 모두의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 (032-440-8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0학년도 1월 시민을 위한 인천 정책 문제지

<지역 경제 활성화 영역>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2020년, ‘인천e음카드’가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캐시백 요율은 월 30만원 이하 4%,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다. 비캐시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선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6만 개로 늘어난다. 가맹점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0%인 QR 간편 결제를 지원하고, 인천e음카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매장 홍보도 진행한다. 인천e몰과 인천 굿즈를 통한 상품 다양화에 나서 히트 상품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유경제물, 클라우드펀딩, 쿠팡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가계와 골목,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린다. 기부 서비스, 모임과 단체 특화 카드 발급, 공동 모금 서비스 등은 지역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다. 인천시와 군·구의 협력도 기대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 인천e음카드 발행 목표액은 2조5,000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캐시백과 비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2020년, 한 달 동안 인천e음카드를 25만원 사용했을 경우, 나의 캐시백 요율은 얼마일까요?

- ① 6%    ② 5%    ③ 4%    ④ 3%    ⑤ 2%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인천시는 인천e음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한 공유경제물, 클라우드펀딩, 쿠팡 등 다양한 ○○○○○를 제공해 가계와 골목,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릴 계획이다.

3. ‘인천e음카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인천 능력 평가’에 출제된 문제의 답을 순서대로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1월 15일까지)**

**\*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굿모닝,  
캠프 마켓

／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초콜릿색 소스를 듬뿍 얹은 스테이크를 부평 캠프 마켓에서 맛보았던 때는 1990년대 초반이었다. 넓적하고 두툽한 고기의 식감이 감동적이었다. 싱싱한 샐러드와 고소한 수프가 스테이크의 품격을 한껏 높여주었다. 출입 카드를 갖고 있던 지인을 따라 캠프 마켓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끝이었다. 이후 부평과 신포동 변화가에 있던 경양식집 메뉴가 시시해졌던 기억이 새롭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캠프 마켓에 자주 발걸음을 한 건 취재를 위해서였다. 캠프 마켓 1번 출입구(GATE1) 앞에서 정기적으로 ‘미군 부대 반환’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때때로 인간띠잇기, 걷기대회를 병행하며 끈질기게 반환을 촉구했다. 일명 ‘코끼리부대’라고 불린 오키나와(沖縄) 미군 부대에 갔을 때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 범죄와 환경오염,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평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기 시작한 건 1945년부터다. 애스컴시티(ASCOM City). 부평에만 ‘시티’라는 별칭이 붙은 것은 역할이 다른 여러 부대가 혼재하며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했기 때문이다.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헌병대, 후송 병원까지 갖춘 대규모 기지가 애스컴시티였다. 121후송병원은 시설이 좋아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애스컴 게이트1(폐쇄)

부대 규모가 크다 보니 여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권투선수 홍수환의 모친은 스넥바를 했고, 부평 출신 뮤지션 정유천의 부친은 빵을 만들었다. 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항공정비사, PX 점원, 구두닦이, 청소부와 같은 군속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인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송도국제경양식은 미군부대 장교 식당 요리사가 1972년 독립해 차린 레스토랑의 후신이기도 하다. 지독히 가난하던 시절, 부평 미군 부대가 지역 경제와 생계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군을 상대해야 했던 여인들과 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는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부평 미군 부대가 케이팝(K-Pop)의 모태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수들이 설 만한 무대나 방송이 열악하던 시절, 벼락 스타를 꿈꾸던 뮤지션들의 소원은 미8군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오디션이 엄격한 미8군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기 위해선 피나는 연습을 해야 했다. 키보이스, 신중현, 조용필, 패티김, 소리새와 같은 대중가수들은 그렇게 탄생했고,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다. 삼릉의 줄사택과 신촌, 산곡동 영단주택은 부평 미군 부대의 흔적이기도 하다.

‘도시 안의 섬’이었던 부평 캠프 마켓의 반환이 지난해 12월 11일 확정됐다. 반세기 넘게 높은 담벼락과 흉물스럽게 말려있던 가시 철망이 사라지고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줄곧 반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시는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슬로시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 공간을 조성하든, 공원을 가꾸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 부평’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굿바이, 애스컴시티.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딸만 둘이던 부모님께 또 한 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넓은 든직한 둘째 사위입니다. 먼저 결혼해 영국에 살고 있는 언니가 파란 눈의 정 많은 형부와 한국을 찾았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든든해 하시면서도 서운한 마음 감추지 못하시는 부모님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두 딸이 못 다했던 효도, 넷이서 두 배로 할게요. 바다 건너 외국에 사는 언니 뒤편까지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두 분께 가장 좋은 선물이 되도록 행복하게 잘 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박남주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기분좋은날사진관’에서 찍어주셨습니다. 2016년, 영종도가 좋아 무작정 이사를 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이 키우며 친근한 동네 사진관 아저씨처럼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한희석 사진사에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위치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7-4 문의 032-752-9542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